

『東醫寶鑑』의 ‘形氣論’에 대한 소고

¹박준규, ¹차웅석, ¹김남일¹경희대학교 의학교실

A View on Hyung-Ki in Donguibogam

¹Jun Gyu Park, ¹Wungseok Cha, ¹Namil Kim¹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e narration of 『Donguibogam』 is focused on humans whilst medical books before it focused on diseases. This is shown from the first subtitle of External Body(身形門) chapter, [The Origin of Hyung-Ki(形氣之始)]. The contents of [The Origin of Hyung-Ki] explains that the human body is composed of ‘Hyung(形)’ and ‘Ki(氣)’. This perspective is shown throughout 『Donguibogam』.

First, in the aspect of construction, the viewpoint is shown from the ‘JipRye(集例)’. It divides the body into inside and outside, which is a result of Hyung-Ki perspective. This continues in the table of contents. Naegyeongpyeon(內景) and Oehyeongpyeon(外形) describe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ody, in other words ‘Hyung-Ki’. Japyeongpyeon(雜病) describes complex illnesses with mixed insides and outsides. Tangaekpyeon(湯液) and Chimgupyeon(鍼灸) can be understood as division of treatment methods into inside and outside.

When we look at the contents, the human body is created on the basis of the essence and vital energy of the world. Cheon-Ki becomes the ‘Ki’ that forms the functions of the body, while Ji-Ki becomes the ‘Hyung’ that constructs the bodily structure. It is considered that ‘Hyung’ is composed of SaDae(the body essence, vital energy, mentality and blood), and ‘Ki’ is composed of OSang(the five Jang organs and six Bu organs).

‘Hyung’ and ‘Ki’ show various appearances according to physiology and pathology. ‘Hyung’ is especially shown by obesity or thinness, ‘Ki’ by color. The obese may have Ki deficiency, coldness, dampness or phlegm. The thin could have blood deficiency, heat, fire or dryness. The color could show the pathology of the five Jang organs by the five colors, but it can simply be divided into black and white, where black means Eum deficiency, and white means Yang deficiency.

It is said that the distinctive featur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that it is a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is perspective, further study on ‘Hyung-Ki’ is of value. If 『Donguibogam』 was the foundation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四象醫學), study on ‘Hyung-Ki’ means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so, the study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yungsang medicine(形象醫學) will show the modern image of 『Donguibogam』. Hence, interchange study between 『Donguibogam』,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Hyungsang medicine through the term ‘Hyung-Ki’ could hopefully lead to academic progression.

Key words : Donguibogam, Hyung-Ki, Hyungsang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 들어가는 말

『東醫寶鑑』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사회각계에서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東醫寶鑑』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접수 ▶ 2010년 9월 1일 수정 ▶ 2010년 9월 15일 채택 ▶ 2010년 9월 19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形象醫學을 주창한 芝山은 “『東醫寶鑑』 전체는 身形門으로 요약할 수 있고, 身形門은 「身形臟腑圖」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거꾸로 말하면 「身形臟腑圖」의 내용을 펼치면 『東醫寶鑑』 전체가 된다는 것으로, 이는 「身形臟腑圖」에 『東醫寶鑑』의 의학사상이 집약되어 있다는 뜻이다.

「身形臟腑圖」의 내용을 보면, 天人相應의 원칙에 따라 인체가 만들어진다는 것과 形色에 따라 치료를 달리 해야한

다¹⁾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는 외증보다 인체의 ‘形氣²⁾’를 살피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形色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궁리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身形臟腑圖」, 身形門을 앞부분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金南³⁾의 말처럼 身形門의 첫 번째 소제목이 [形氣之始]로 시작하는 것에서 그 의도는 더욱 극명해진다. 즉, 인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논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인체는 ‘形’과 ‘氣’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체관에 따라 「身形臟腑圖」에서는 ‘形氣’를 살피는 개괄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즉, 肥瘦·長短·大小를 통해 ‘形’을 살피고, 色을 통해 장부의 ‘氣’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렇듯 ‘形氣’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는 원칙은 『東醫寶鑑』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자가 『東醫寶鑑』을 ‘形氣論’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芝山과 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평소 芝山이 왜 形象을 중시하고, 다양한 形象 분류 체계를 갖추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를 화두삼아, 芝山이 주로 읽던 『東醫寶鑑』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로 ‘形氣’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形氣’라는 주제로 『東醫寶鑑』을 다시 읽던 중에 金의 「形氣에 대한 논의⁴⁾」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글은 ‘形氣’에 대해 막연했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주었다.

그 결과 『東醫寶鑑』은 당대의 방대한 의학정보를 ‘形氣論’이라는 인체관에 따라 재창출한 의서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東醫寶鑑』을 의학백과사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전이란 정보를 취합해서 찾기 쉽게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東醫寶鑑』은 그 목차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形氣’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정보를 정리했기 때문에, 단순한 사전류로 치부하는 것은 『東醫寶鑑』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東醫寶鑑』의 구성면에서 集例와 목차에 나타난 形氣論의 인체관을 알아보고, 내용면에서 ‘形氣’의 생성과 구성, 생리·병리, 진단·치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集例」에서의 形氣論의 인체관

『東醫寶鑑』에서 인체관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곳은 「集例」이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겉에는 근골·기육·혈맥·피부가 있어 형태를 갖추며, 정·기·신이 또 장부와 온몸의 주인이 됩니다. … 이 책은 먼저 몸속의 모습[내경]인 정·기·신·장부로 내편을 삼고, 다음으로 겉의 모습인 두·면·수·족·근·맥·골·육으로 외편을 삼았습니다. 또 오운육기·사상과 삼법·내상과 외감·온갖 병의 증상들을 나열하여 잡편으로 삼았고, 끝으로 탕액편과 침구편을 두어 그 변화를 다하였습니다.”⁵⁾

여기에서는 인체를 크게 內外로 나누고 있다. 內를 구성하고 있는 정·기·신·장부와 外를 구성하고 있는 두·면·수·족·근·맥·골·육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곧 身形門에서 인체를 ‘形’과 ‘氣’로 나누어 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內’는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없기에 그 기능(운행)을 통해 변화를 살필 수 있으므로 ‘氣’에 해당한다. ‘外’는 그 구조(조직)를 통해 변화를 살필 수 있으므로 ‘形’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集例」에서부터 形氣論의 인체관을 엿볼 수 있다.

3. 목차의 形氣論의 구성

『東醫寶鑑』 전체의 목차는 「集例」에서 밝힌 形氣論의 인체관에 따라 내경편·외형편을 앞에 두고 있다. 잡병편은 內外가 섞여 복잡하게 나타나는 질병을 논한 것으로 보이며, 탕액편과 침구편은 치료 방면에서 內外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탕액편은 內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침구편은 外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목차 역시 形氣論의 인체관에 따라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許浚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2005(이하 『對譯東醫寶鑑』), p.10. : “사람마다 形色이 이미 다르면 五臟六腑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

2) 여기에서 色은 五臟之氣의 발현상을 말하며, 形色을 살핀다는 것은 곧 形氣를 살핀다는 것이다.

3)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이하 金)

4)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http://www.dongui400.or.kr>), 『東醫寶鑑』으로 읽는 韓醫學의 歷史(39) : 金南一, 「『東醫寶鑑』의 形氣에 대한 논의」.

5) 『對譯東醫寶鑑』·「集例」, p.3.

세부 목차에서도 形氣論의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내경편의 목차를 보면 이러한 구조를 잘 볼 수 있는데, ‘形’을 이루는 ‘四大’에 해당하는 정·기·신·혈을 앞에 배치하고⁶⁾, ‘氣’를 이루는 ‘五常’⁷⁾에 해당하는 오장육부를 뒤에 배치하여 形氣論의 구조로 되어 있다.⁸⁾

더 세부적으로 볼 때 身形門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形氣之始]와 [胎孕之始]를 통해 인체가 ‘形’과 ‘氣’로 이루어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四大成形]을 통해 形의 사대요소를 말하였다. [人氣盛衰]와 [年老無子]에서는 形氣의 변화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人氣盛衰]에서는 氣의 성쇠를, [年老無子]에서는 形의 성쇠를 말하고 있다.

[壽夭之異]에서는 形氣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따른 수명의 차이를 논하고, [形氣定壽夭]에서는 形과 氣의 조화에 따른 수명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은 비록 수명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만, 요절하는 조건을 질병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하다.

[人身猶一國]에서는 오장육부를 국가의 12개 기관에 비유하였다. 이는 ‘五常’에 대해 말하고자 한 것이다.

[丹田有三], [背有三關], [保養精氣神]에서는 ‘四大’ 중 정·기·신과 인신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있다. [丹田有三]에서는 인체의 앞부분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정·기·신이 저장되는 부위임을 말하고, [背有三關]에서는 인체의 뒷부분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정기가 운행되는 통로임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인체의 앞에서는 정·기·신을 저장하고, 뒤에서는 정기가 유통되고 있기에, 정·기·신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에 [保養精氣神]에서는 정·기·신을 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四大의 정·기·신·혈 중 혈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오랜 고민 끝에 다음의 두 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사람의 몸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겉에는 근골·기육·혈맥·피부가 있어 형태를 갖추며, 정·기·신이 또 장부와 온몸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가의 상요와 석씨의 사대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⁹⁾
 “혈이 가득하면 형이 성하고, 혈이 부족하면 형이 쇠하다.”¹⁰⁾

이는 앞서 정·기·신·혈이 形을 이루는 사대요소라고 한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形’의 구성을 논한 것으로 본다. 『血·血爲榮』에서는 혈이 形(인신의 외형)을 이룬다고

하였고, 『集例』에서는 정·기·신이 바로 인신의 주인으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비유하자면 혈이라는 주머니에 정·기·신을 담고 있는 모습이 바로 ‘形’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정·기·신이 모여 혈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정·기·신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곧 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古有真人至人聖人賢人]부터 [先賢格言]까지는 정·기·신의 양생법과 금기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養生延年藥餌], [單方], [神枕法], [煉臍法], [薰臍秘方], [灸臍法]에서는 약물을 내복하거나 외용하여 정·기·신을 보양함으로써 形氣를 기르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의 전체 목차는 물론 내경편의 목차, 그리고 身形門의 세부 목차까지도 形氣論의 인체관의 내용과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形氣의 생성과 구성

身形門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성쇠, 그리고 섭생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논의의 시작을 [形氣之始]라는 제목을 통해 알리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乾鑿圖』의 글을 인용하여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그 생성과정을 太易·太初·太始·太素로 나누어 未見氣→氣→形→質의 순서로 만물이 생성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參同契』의 글을 통해 形氣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鴻濛, 形氣가 갖추어졌으나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을 渾淪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易』의 글을 인용하여 太極은 渾淪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크게 보면 우주 만물의 생성을 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게 보면 인체의 생성을 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太極을 하나의 존재물, 또는 인체로 본다면, 인체는 ‘形’과 ‘氣’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形’과 ‘氣’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6) 四大란 인용문에서는 地·水·火·風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四大와 五常을 함께 언급하기 위해 인용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는 ‘形’을 구성하는 사대요소인 정·기·신·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7) 許浚 지음, 원진희 역, 『精校註譯東醫寶鑑·內經篇』, 신우문화사, 2003, p.10. : 여기에서는 成玄英이 莊子疏에서 “五常謂五行”이라고 한 것을 인용해, 五常은 五行을 말한다고 하였다.

8) 앞에서 “五常謂五行”이라고 한 것에 착안하여, 五行의 원리를 적용하는 五臟六腑를 五常으로 보았다.

9) 『對譯東醫寶鑑』·集例, p.3.

10) 『對譯東醫寶鑑』·血·血爲榮, p.121.

까? 그 근원은 「身形·胎孕之始」에서 찾을 수 있다.

“천지의 정기가 만물의 형으로 되는데, 아버지의 정기가 혼이 되고 어머니의 정기가 백이 된다. … 천지의 덕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 천지의 덕이 기와 합쳐진 다음에야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다.”¹¹⁾

여기에서 천지의 정기, 부모의 정기, 천지의 덕이 ‘形’과 ‘氣’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원을 바탕으로 ‘形氣’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곳이 있다.

“음양이 변화하고 합하여 처음에 수화가 생겨난다. 수화는 기이기 때문에 흘러 다니고 타오르기도 하지만 본체는 오히려 허하고 형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 다음에 목금이 생기면서 형이 확연히 드러난다. 수화는 처음에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다.”¹²⁾

여기에서 음양이 변화하고 합한다는 것은 남녀가 교합하는 과정을 말하고, 수화가 생겨난다는 것은 ‘形氣’ 중에서 무형의 ‘氣’가 먼저 생겨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금이 생긴다는 것은 기가 생긴 이후에 유형의 ‘形’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形’과 ‘氣’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辨證·凡病辨有餘不足」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는 입과 코로 쉬는 숨을 말한다. 형은 피·육·근·골·혈맥이다. 형이 성한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마른 것은 부족한 것이다. 기는 입과 코의 숨을 살펴보아 일을 많이 한 뒤에도 숨결이 평소와 같으면 여유가 있는 것이고, 숨이 차고 급하며 숨이 짧거나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은 부족한 것이다. 이것을 形氣라고 한다.”¹³⁾

즉, ‘氣’는 호흡을 통해 얻는 무형의 에너지를 말하고, ‘形’은 몸을 이루고 있는 유형의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氣’를 단순히 호흡을 통해 얻는 에너지로만 생각하기보다는 『東醫寶鑑』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 의미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의 상태는 色·氣勢·情緒 등의 다양한 無形의 徵兆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五臟之氣는 五色으로 드러난다¹⁴⁾는

것만 보아도 ‘氣’의 범주를 호흡에 국한시켜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芝山은 ‘形氣’와 비슷한 의미로 ‘形象’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그는 形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形象이란 事物이 지니고 있는 本質이 自然 그대로 外部로 드러나는 모든 發顯象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形이란 事物을 구성하는 組織으로 形體를 뜻하고, 象이란 事物에 內在한 本質을 뜻하며 徵兆로 나타난다.”¹⁵⁾

“形象이란 天의 象과 地의 形이 교합하여 생긴 事物의 생김새와 상태로, 外部로 드러나는 모든 發顯象을 말한다. 여기에서 形은 땅의 이치에 따라 나타난 인체의 大小·肥瘦·長短 등 有形한 形體를 뜻하고, 象이란 하늘의 이치에 따라 나타난 인체의 色·氣勢·情緒(神) 등 無形한 徵兆를 뜻한다.”¹⁶⁾

여기에서 芝山이 말하는 ‘形象’은 『東醫寶鑑』에서 말하는 ‘形氣’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형성된 ‘形’과 ‘氣’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천지의 기운을 계속 받아야한다. 이때 천지의 기운을 받는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 법칙은 「風·熏法」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의 입은 땅과 통하고 코는 하늘과 통한다. 입으로 음을 기르고 코로 양을 기른다. 하늘은 맑은 것을 주관하므로 코는 유형의 것을 받지 못하고 무형의 것을 받는다. 땅은 탁한 것을 주관하므로 입은 유형의 것을 받으면서 무형의 것도 받는다.”¹⁷⁾

즉, 코를 통해 하늘의 무형의 기운을 받아 ‘氣’를 이루고, 입을 통해 유형의 물질을 받아 ‘形’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해 「天地運氣·天地之形」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지가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뒤섞여 청탁이 갈리지 않았고 단 하나의 기운이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지나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점점 가볍고 맑아지고, 가운데 모인 것은 점점

11) 『對譯東醫寶鑑』·'身形·胎孕之始', pp.11~12.

12) 『對譯東醫寶鑑』·'津液·積氣生液', p.192.

13) 『對譯東醫寶鑑』·'辨證·凡病辨有餘不足', p.925.

14) 『對譯東醫寶鑑』·'審病·五色占吉凶', p.906 : “오장기의 정화가 올라와 五色으로 드러나고, 정명에서 변화하여 나타난다.”

15) 白根基, 「形象에 관한 文獻 考察」, 大韓傳統韓醫學會誌, 1999, p.3.

16) 白根基, 「形象에 관한 文獻 考察」, 大韓傳統韓醫學會誌, 1999, p.4.

17) 『對譯東醫寶鑑』·'風·熏法', p.999.

무겁고 탁해졌다. 가볍고 맑은 기가 모여 상을 이루고 하늘이 되었으며, 무겁고 탁한 기가 모여 형을 이루고 땅이 되었다.¹⁸⁾”

우주의 기운이 경중과 청탁으로 나누어지면서 만물의 形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소우주인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湯液序例·氣味升降」에서 밝히고 있다.

“맑고 가벼운 것은 상을 이룬다. …… 탁하고 무거운 것은 형을 이룬다.¹⁹⁾”

즉, 천지의 기미를 받아 인체의 形象을 이루게 되는데, 맑고 가벼운 것은 象(=氣²⁰⁾)을 이루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形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東醫寶鑑』에서 인체는 천지의 기운, 부모의 정기가 교합되어 생성되는 존재로써 ‘形’과 ‘氣’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지의 기운이 경중과 청탁으로 나누어지면서, 맑고 가벼운 것은 ‘氣’를 이루고, 무겁고 탁한 것은 ‘形’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때 ‘形’은 만물의 구조(조직)를 이루는 유형의 물질(상태)로, ‘氣’는 만물의 기능(운행)을 이루는 무형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形氣와 四大·五常

앞에서 인체는 ‘形’과 ‘氣’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였다. 이어서 ‘形’과 ‘氣’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알아보려고 한다. 이는 「身形臟腑圖」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이 모든 것은 四大와 五常을 바탕으로 하여 잠시 形을 빚어 놓은 것이다.²¹⁾”라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四大와 五常은 무엇을 말하는가? 「身形·四大成形」에서는 四大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람은 지·수·화·풍이 화합하여 만들어진다. … 이 네 가지가 잠시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²²⁾”

四大란 地·水·火·風을 말하는데, 이는 ‘形’을 구성하는 사대요소로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形’과 ‘氣’를 더 세분하

여 네 가지로 나눈 것으로 볼 수도 있다. ‘形’과 ‘氣’를 세분한 것으로 볼 때, 地와 水는 유형의 물질에 속하는 것으로 ‘形’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火와 風은 무형의 현상에 속하므로 ‘氣’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四大는 크게 볼 때 ‘形’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形’과 ‘氣’로 나눌 수 있다.

한편, 五常에 대한 설명은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元秦喜²³⁾는 成玄英이 莊子疏에서 “五常謂五行”이라고 한 것을 인용해, 五常은 五行을 말한다고 하였다²⁴⁾. 이는 오장육부에 의해 발현되는 오행의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東醫寶鑑』에서는 인체를 ‘形’과 ‘氣’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보고 있는데, 이 ‘形’과 ‘氣’는 四大와 五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이 四大와 五常을 대비해 볼 때, 四大는 정·기·신·혈로 ‘形’을 이루는 사대요소를 말하고, 五常은 오장육부에 의해 발현되는 오행의 원리로 ‘氣’를 말하는 것이다.

四大	精氣神血	形
五常(五行)	五臟六腑	氣

6. 形氣와 남녀

사람은 음식은 물론 호흡을 통해서도 정·기·신을 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小兒·痘癩疹三證專有胎毒」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식은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의 호흡을 따라 숨을 쉰다. 호흡은 양기이다. 호흡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정·기·신을 기른다.²⁵⁾”

이는 [人氣盛衰]에서 천기의 영향을 받아 氣의 성쇠가 이

18) 『對譯東醫寶鑑』·「天地運氣·天地之形」, p.880.

19) 『對譯東醫寶鑑』·「湯液序例·氣味升降」, p.1977.

20) 芝山이 말한 形象과 『東醫寶鑑』에서의 形氣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象과 氣를 같다고 보았다.

21) 『對譯東醫寶鑑』·「身形臟腑圖」, p.10.

22) 『對譯東醫寶鑑』·「身形·四大成形」, p.12.

23)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24) 許浚 지음, 원진희 역, 『精校註譯東醫寶鑑·內經篇』, 신우문화사, 2003, p.10.

25) 『對譯東醫寶鑑』·「小兒·痘癩疹三證專有胎毒」, p.1908.

루어진다든 것과 [年老無子]에서 지기의 영향을 받아 形의 성쇠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호흡을 통해 정·기·신을 기르는 과정에서 氣의 성쇠가 이루어지고, 음식을 통해 정·기·신을 기르는 과정에서 形의 성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호흡과 음식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形氣의 비율이 각각 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수명의 차이는 물론 건강상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形氣의 편차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남녀 간에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인체가 태중에 있을 때, 음양의 편차, 부정과 모혈의 섞인 정도에 따라 남녀로 나뉘는 과정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²⁶⁾ 이를 과상으로 볼 때, 음이 양을 감싼 것은 二陰一陽의 坎水卦에 해당하고, 양이 음을 감싼 것은 二陽一陰의 離火卦에 해당한다. 즉, 남자는 坎水卦, 여자는 離火卦로써 선천적으로 음양의 편차가 생겨 形氣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기·신·혈의 편차도 나타난다. 「婦人·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에서 “남자는 정을 위주로 하고, 부인은 혈을 위주로 한다.”²⁷⁾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정·기·신·혈의 편차가 생기면 形氣의 편차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생리·병리적 상황도 다르게 나타나고, 치료도 다르게 해야 한다. 이는 「氣·用藥法」에 잘 나타나있다. “남자는 양이니 기를 얻으면 흩어지기 쉽고, 여자는 음이니 기를 만나면 대부분 울체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기병이 적고, 여자는 기병이 많다. 그러므로 치료법에서 여자는 혈을 고르게 하여 기를 소모시켜야 하고, 남자는 기를 고르게 하여 혈을 길러야 한다.”²⁸⁾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形氣의 편차로 인해 남녀의 形象이 다르고, 그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치료도 달리 해야 한다고 보았다.

7. 形氣의 변화와 상관성

1) 形氣의 변화

‘形’과 ‘氣’로 이루어진 인체는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해간다. 이때 인체를 구성하는 ‘形’과 ‘氣’의 변화에 대해 「身形·人氣盛衰」, 「身形·年老無子」에서는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人氣盛衰]에

서는 10세를 주기로 변화하는 ‘氣’의 성쇠를 설명하고, [年老無子]에서는 남자는 8세, 여자는 7세를 주기로 변화하는 ‘形’의 성쇠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인체는 성장하면서 形氣의 변화를 꾀한다. 특히, 돌 전에는 변증의 과정을 통해 오장의 기가 변하고, 칠정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소아에게 나타나는 形氣의 변화에 대해서는 ‘變蒸’이라고 하였다.²⁹⁾

2) 形氣의 상관성

인체의 변화 양상을 ‘形’과 ‘氣’로 나누어 밝힌 것은 인체를 구성하는 ‘形’과 ‘氣’가 각각 천기와 지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기의 영향을 받아 ‘氣’의 성쇠가 나타나고, 지기의 영향을 받아 ‘形’의 성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形’과 ‘氣’의 성쇠는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形氣의 상관성은 혈과 기의 관계로 설명하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耳·耳目受陽氣以聰明」에서는 혈과 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이목의 생리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³⁰⁾ 또, 「手·手循衣撮空摸床」에서는 기와 혈이 서로 체용이 된다고 하였다.³¹⁾

그런데, ‘形’과 ‘氣’는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존재되어있다. 이를 「天地運氣·天氣流行」에서는 땅과 양기의 관계에 비유하였다.³²⁾ 이를 통해, ‘形’ 안에 ‘氣’가 있어 ‘氣’가 ‘形’을 운행

26) 『對譯東醫寶鑑』·「小兒·臟腑生成」, p.1836 : “3개월이 되었을 때 우신이 먼저 생기면 남자가 되니 음이 양을 감싼 것이고, 좌신이 먼저 생기면 여자가 되니 양이 음을 감싼 것이다.” ; 「婦人·雙胎品胎」, p.1758. “기가 뒤섞인 정도에 따라 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남녀를 겸한 형태가 갈 수 없는 것이다.”

27) 『對譯東醫寶鑑』·「婦人·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 p.1814.

28) 『對譯東醫寶鑑』·「氣·用藥法」, p.79.

29) 『對譯東醫寶鑑』·「小兒·變蒸候」, p.1840 : “변증이란 음양·수화가 혈기를 혼증하여 형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오장의 기가 변한 것인데, 칠정이 여기에서 나온다. … 변이란 변화하면서 오장을 생기게 하는 것이고, 증이란 육부를 찌서 기르는 것이다.”

30) 『對譯東醫寶鑑』·「耳·耳目受陽氣以聰明」, p.548 : “귀와 눈의 음혈이 허하면 양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귀와 눈이 밝지 않게 되고, 귀와 눈의 양기가 허하면 음혈이 스스로 작용하지 못해서 역시 밝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귀와 눈은 반드시 혈과 기가 서로 의지해야 비로소 밝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31) 『對譯東醫寶鑑』·「手·手循衣撮空摸床」, p.779. : “혈은 음물이니 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 기가 혈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천지가 서로 체와 용이 되는 이치이다.”

32) 『對譯東醫寶鑑』·「天地運氣·天氣流行」, p.881 : “땅은 폐와 같아서 형질은 비록 단단하나 속은 본래 비어 있다. 그래서 양기가 그 속에서 오르내리고 막히는 것이 없어 쇠나 돌이라도 통과한다. 땅은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芝山은 이러한 의미로 “四象 속에 五行이 있고, 五行 속에 四象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形’ 안에 ‘氣’가 존재하듯, ‘氣’ 안에도 ‘形’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形’과 ‘氣’의 상관성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癰疽」에서는 혈과 기가 모두 병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³³⁾ 또, 치료에 있어서도 혈과 기의 상관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혈이 기에 의해 운행되는 원리³⁴⁾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益胃升陽湯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처방의 해설에 “혈이 고갈되었을 때 기를 보하는 것은 옛 성인들의 방법이다.³⁵⁾”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虛勞·虛勞治法」에 “형이 부족하면 기로써 길러준다고 하였다. 온은 기른다는 뜻이니 몸을 조리하여 기르면 기가 저절로 충실해지고, 기가 충실해지면 형이 완전해진다.³⁶⁾”고 한 것도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혈이 기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咳嗽·肺脹證」에 나오는 四物湯 加減이 그 예이다.³⁷⁾

이와 같이 ‘形’과 ‘氣’는 인체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이 적절하지 못할 때 병리적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때 치료에 있어서는 ‘氣’를 다스려서 ‘形’의 병을 치료하거나, ‘形’을 다스려서 ‘氣’의 병을 치료하는 등,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8. 形氣의 생리·병리

「身形·壽夭之異」에서는 ‘形氣’의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따른 수명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³⁸⁾ 선천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形氣’의 품질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는 외감과 내상이 ‘形氣’를 손상시켜 수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명이라는 말을 질병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形氣’의 병리적 상태를 야기하는 선천적·후천적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身形·形氣定壽夭」에서는 ‘形’과 ‘氣’의 조화에 따른 수명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³⁹⁾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形’과 ‘氣’ 각각의 품질에 따라 수명이 달라짐을 말하였다면, 여기에서는 ‘形’과 ‘氣’의 조화 여부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形’과 ‘氣’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形氣’의 병리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생리·병리적 이야기를 찾아보자. 먼저 ‘形’에 있어 肥瘦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肉·肉主肥瘦」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혈이 실하고 기가 허하면 살이 찌고, 기가 실하고 혈이 허하면 마른다.⁴⁰⁾”

여기에서 혈을 形으로 바꿀 경우, 형성기괴하면 살이 찌고, 기성형괴하면 살이 마른다는 것이다. 즉, 形氣의 성쇠 조합에 따라 肥瘦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肥人과 瘦人에게 나타나는 병리는 「辨證·肥瘦辨病候」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⁴¹⁾ 즉, 肥人은 氣虛·寒·濕·痰, 瘦人은 血虛·熱·火·燥의 병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風·肥人多中風」에서는 형성기괴한 肥人에게 중풍이 잘 올 수 있다고 하였다.⁴²⁾ 또, 肥人과 瘦人은 병의 예후도 다르다. 이에 대해 「足·脚氣病證」에서는 검고 마른 사람보다

이러한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기른다.”

33) 『對譯東醫寶鑑』·「癰疽·癰疽發病之原」, p.1531 : “혈이 흐르지 않으면 위기가 따라서 통하지 않고 막혀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 「癰疽·癰疽欲發之候」, p.1532 : “癰疽는 모두 기운로 생긴다. 경에 기가 경락에 머물러 혈과 함께 운행하지 못해 멎치면 癰疽가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칠정으로 생기는 것을 말한 것이다.”

34) 『對譯東醫寶鑑』·「血·血爲氣配」, p.122 : “혈은 물과 같고 기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물 위로 부는 것이 혈과 기의 모습이다. 기는 혈을 이끌고 다닌다. 따라서 기가 흐르면 혈이 흐르고 기가 멈추면 혈이 멈추며, 기가 따뜻하면 혈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기가 차가우면 혈이 걸끄러워 잘 흐르지 못한다.”

35) 『對譯東醫寶鑑』·「內傷·益胃升陽湯」, p.1221.

36) 『對譯東醫寶鑑』·「虛勞·虛勞治法」, p.1255.

37) 『對譯東醫寶鑑』·「咳嗽·肺脹證」, p.1336 : “혈을 길러 기를 흐르게 하고, 화를 내리고 간기를 잘 통하게 하며 담을 맑게 해야 하니 사물탕에 도인·가자·청피·죽력 같은 것들을 넣는다.”

38) 『對譯東醫寶鑑』·「身形·壽夭之異」, p.14 : “사람의 수명은 각기 천명에 달려 있다. 천명이라는 것은 천지와 부모에게서 받은 원기를 말한다. ... 외부에서 풍·한·서·습의 사기가 들어오거나, 굶주리거나 포식하거나 일을 많이 하여 내상이 생기면 어떻게 부모로부터 받은 원기를 다할 수 있겠는가?”

39) 『對譯東醫寶鑑』·「身形·形氣定壽夭」, p.14 : “형과 기가 서로 맞으면 장수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요절한다.”

40) 『對譯東醫寶鑑』·「肉·肉主肥瘦」, p.742.

41) 『對譯東醫寶鑑』·「辨證·肥瘦辨病候」, p.920 : “살찐 사람은 기가 허하여 한이 생긴다. 한이 습을 낳고, 습이 담을 낳는다. 마른 사람은 혈이 허하여 열이 생긴다. 열이 화를 낳고, 화가 조를 낳는다. 그래서 살찐 사람은 한습이 많고, 마른 사람은 열조가 많다.”

42) 『對譯東醫寶鑑』·「風·肥人多中風」, p.986 : “사람이 50살이 지나 기가 쇠할 무렵에 이러한 병이 많이 생긴다. 튼튼하고 젊은 사람은 생기지 않으나 매우 살찐 사람은 간혹 생기기도 한다. 형은 큰데 기가 부족해서 그러하다.”

살찌고 붉거나 흰 사람이 치료가 어렵다고 하였다.⁴³⁾

「辨證·寒熱傷形氣」에서는 한열에 따른 形氣의 병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⁴⁴⁾ 즉, 寒暑에 의해 形이 상하고, 熱과 喜怒에 의해 氣가 상한다는 것이다. 이때 氣가 상하면 통증이 나타나고, 形이 상하면 붓는다.

「用藥·形氣用補瀉」에서는 形氣와 病氣의 유여·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허실의 상태를 파악하여 보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⁴⁵⁾

「內傷·內傷有飲食傷勞倦傷二因」에서는 노권상도 ‘形’을 상하는 것과 ‘氣’를 상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⁴⁶⁾ 즉, 노력상은 氣를 상한 것이고, 노심상은 形을 상한 것이다.

9. 形氣의 진단·치료

『東醫寶鑑』에서 진단에 있어 ‘形氣’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다.⁴⁷⁾ 그런데 ‘形氣’를 살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肥瘦와 色을 살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았다. 이렇게 形色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증상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서 진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예를 들어 「診脈·脈從病反」에서는 ‘熱盛拒陰’을 들어 형과 증은 한하지만 맥은 열이 성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⁹⁾

한편, 「瘟疫·普濟消毒飲子」에서는 인체의 상부를 천기, 하부를 지기로 나누고 있다.⁵⁰⁾ 이는 다시 생각하면 상부는 천기를 많이 받는 곳이므로 ‘氣’에 해당하는 곳으로 볼 수 있고, 하부는 지기를 많이 받는 곳이므로 ‘形’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芝山은 이와 유사하게 목을 중심으로 상부인 머리는 ‘氣’, 하부인 몸은 ‘形’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形’과 ‘氣’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形’과 ‘氣’에서는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살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이미 「身形臟腑圖」에서 언급하고 있다. ‘形’에서는 長短·大小·肥瘦를 살피고, ‘氣’에서는 色을 살피라고 하였다. 즉, ‘形’에서는 인체의 조직의 상태(유형)를 살피고, ‘氣’에서는 운행의 상태(무형)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인체를 ‘形’과 ‘氣’로 나누어 살피는 것은 사물을 구조와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진단에서는 물론, 양생을 하는데 있어서도 강조하고 있다.⁵¹⁾ 즉, 양생을 할 때에도 ‘形’과 ‘氣’

의 상태를 알고, 이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肥瘦와 色 외에도 大小便을 통해 ‘形氣’의 상태를 가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大便·三一承氣湯」에서는 “전후로 말하면 전은 기이고, 후는 혈이다⁵²⁾” 이는 소변을 통해 ‘氣’의 상태를 가능하고, 대변을 통해 혈의 상태, 즉 ‘形’의 상태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形’, ‘氣’, ‘形氣’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1) ‘形’의 진단·치료

‘形’의 진단에는 肥瘦로 나누어 치료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胸·痞證治法」에서는 같은 비증이 있더라도 肥人은 濕痰, 瘦人은 鬱熱을 원인으로 보아 치료를 달리 하고 있다.⁵³⁾ 「腹·腹中窄狹」에서는 肥人은 濕痰, 瘦人은 濕熱을 원인으로 보아 치료를 달리 하고 있다.⁵⁴⁾ 「小便·赤白濁」에서

43) 『對譯東醫寶鑑』·‘足·脚氣病證’, p.786 : “검고 마른 사람은 치료하기 쉽고, 비대하여 살이 많고 붉거나 흰 사람은 치료하기 어렵다. 검은 사람은 풍습을 견디지만, 붉거나 흰 사람은 풍습을 견디지 못한다. 마른 사람은 살이 단단하고, 살찐 사람은 살이 무르다. 살이 무르면 병들었을 때 치료하기 어렵다.”

44) 『對譯東醫寶鑑』·‘辨證·寒熱傷形氣’, p.917 : “한은 형을 상하고, 열은 기를 상한다, 기가 상하면 아프고, 형이 상하면 붓는다. …회노는 기를 상하고, 한서는 형을 상한다.”

45) 『對譯東醫寶鑑』·‘用藥·形氣用補瀉’, p.944.

46) 『對譯東醫寶鑑』·‘內傷·內傷有飲食傷勞倦傷二因’, p.1203 : “노권상에도 2가지가 있다. 힘을 많이 써서 상한 것[勞力傷]은 순전히 기만 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한 것[勞心傷]은 혈까지 함께 상한다.”

47) 『對譯東醫寶鑑』·‘小兒·小兒病難治’, p.1836 : “형색을 관찰하고 소리를 듣고 맥을 짚어 병의 근원을 살피고, 음양·표리·허실을 밝히지 않으면 소아를 잘 치료할 수 없다.” ; 「鍼灸·鍼補瀉法」, p.2284 : “만드시 먼저 형의 肥瘦를 헤아린 뒤에 기의 허실을 조절해야 한다.”

48) 『對譯東醫寶鑑』·‘審病·診病之道’, p.904 : “맥과 색을 모두 보아야 온전하게 볼 수 있다. 맥의 동정을 짚으면서 정명을 보고, 五色을 살펴서 오장 기의 유여와 부족·육부의 강약·형의 성쇠를 관찰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생사를 판단한다.”

49) 『對譯東醫寶鑑』·‘診脈·脈從病反」, p.938 : “형과 증이 모두 한하지만 눌러 보면 맥의 기운이 손가락을 세게 치면서 왕성하게 뛰는 것은 한증이 아니라 열이 성하여 음을 밀어내어[熱盛拒陰] 병이 든 것이다.”

50) 『對譯東醫寶鑑』·‘瘟疫·普濟消毒飲子」, p.1510 : “몸의 반 이상은 하늘의 기이고, 몸의 반 이하는 땅의 기이다.”

51) 『對譯東醫寶鑑』·‘神·神爲一身之主」, p.85 : “양생의 으뜸은 신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형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을 기르는 자는 반드시 형의 肥瘦, 영위와 혈기의 성쇠를 알아야 한다.”

52) 『對譯東醫寶鑑』·‘大便·三一承氣湯」, p.430.

53) 『對譯東醫寶鑑』·‘胸·痞證治法」, p.668 : “살찐 사람이 명치가 막히고 그득한 것은 습담이 있는 것이다. 창출·반하·사인·복령·활석을 써야 한다. 마른 사람이 명치가 막히고 그득한 것은 울열이 있는 것이다. 지실·황련·갈근·승마를 써야 한다.”

54) 『對譯東醫寶鑑』·‘腹·腹中窄狹」, p.696 : “살찐 사람은 습담이 장부로 흘러들어가니 이진탕에 창출·항부자를 넣고 써야 한다. 마른

는 소변이 적백탁할 경우, 肥人은 濕痰으로 인해 오는 것으로 보아 이진탕에 가감하여 치료하고, 瘦人은 虛火로 보아 사물탕에 가감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⁵⁵⁾ 또, 「用藥·肥瘦用藥」에서는 “살진 사람은 기가 허하여 담이 많으므로 담을 소탕시키고 기를 보하여야 하고, 마른 사람은 혈이 허하여 화가 있으므로 화를 사하고 음을 자양하여야 한다.”⁵⁶⁾고 하였다. 「脹滿·脹滿治法」에서는 “살진 사람의 복창은 습증이니 창출·복령·활석·택사를 써야 한다. 마른 사람의 복창은 열증이니 황금·황련·치자·후박을 써야 한다.”⁵⁷⁾고 하였다.

肥瘦를 진단할 때에는 맥도 참고해야 한다. 「診脈·肥瘦長短異脈」에 “맥에 있어서 살진 사람은 부한 것이 문제이고, 마른 사람은 침한 것이 문제이다. 살진 사람은 침해야 하는데 도리어 부하고, 마른 사람은 부해야 하는데 도리어 침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⁵⁸⁾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形’의 진단에는 肥瘦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도 참고해야 한다. 肥人은 주로 濕痰의 병리가 나타나며, 이를 치료하는 데는 이진탕과 창출·반하가 주로 사용되고, 瘦人은 주로 血虛·火·熱의 병리가 나타나며, 이를 치료하는 데는 사물탕과 황련이 주로 사용된다.

2) ‘氣’의 진단·치료

‘氣’의 진단에는 먼저 色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審病·診病之道」에 “五色을 살피서 오장 기의 유여와 부족·육부의 강약·형의 성쇠를 본다.”⁵⁹⁾고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여기에서 色은 「審病·五色占吉凶」에서 “오장기의 정화가 올라와五色으로 드러나고...”⁶⁰⁾라 한 것과, 「小兒·辨痘形色善惡」에서 “色은 오장의 정화이다.”⁶¹⁾라 한 것처럼 五臟之氣의 발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 色은 어느 부위에서 살피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정명, 명당, 면부에서 살피야 한다고 하였다. 「審病·五色占吉凶」에서는 “정명의五色으로 기의 상태를 안다.”⁶²⁾고 하였고, 「面·明堂部位」에서는 “五色은 오직 명당에서 결정되는데, 명당은 코를 가리킨다. 명당의 色이 푸르거나 검은면 통증이 있는 것이고, 누르거나 붉으면 열증이며, 희면 한증이다.”⁶³⁾라고 하였다. 「面·面見五色」에서는 간심비폐신의 色과 십이경맥의 色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였다.⁶⁴⁾ 얼굴 전체에 나타나는 色에 대해서 「小兒·觀形察色圖」와 「小兒·諸熱」에서는 부위에 따라 오장육부를 배속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⁶⁵⁾ 이와 같이 ‘氣’의 상태는 주로

얼굴의 色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色을 구분하는 것은 치료에도 연결된다. 「脹滿·脹滿治法」에서 “얼굴이 흰 사람은 기가 허한 것이니 인삼·백출·백복령·진피를 써야 한다.”⁶⁶⁾고 하였다. 「用藥·肥瘦用藥」에서는 얼굴이 흰 사람은 기가 허하다고 보아 황기와 같은 기를 보하는 약을 쓸 수 있지만, 검은 사람은 기가 실하다고 보아 황기와 같은 약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⁶⁷⁾

이렇게 色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五音·五聲·五變·五竅·五味·五志 등의 五臟物類를 통해서도 오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⁶⁸⁾

이 외에도 「濕·中濕」에서는 色으로 증습을 살필 수 있으며⁶⁹⁾, 「小兒·五體以頭爲尊一面惟神可恃」에서는 눈에 정기가 없는 것으로 신허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⁷⁰⁾

芝山은 “氣란 무형한 것이다. 氣는 무형이므로 무형을 통해서 形을 추구할 수 있고, 形을 통해서 그 氣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장물류의 속성을 통해 오장의 상태를 알 수 있음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形氣’의 진단·치료

‘形’은 지기의 영향을 받고, ‘氣’는 천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사람은 습열이 장부를 혼증하니 이진탕에 황련·창출을 넣고 써야 한다.”

55) 『對譯東醫寶鑑』·「小便·赤白濁」, p.366 : “소변이 붉거나 희면서 뿌연 것은 살진 사람인 경우 대부분 습담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진탕에 창출·백출·승마·시호를 넣어서 쓰거나 성반합분환을 쓴다. 마른 사람은 허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물탕에 지모·황백을 넣어서 쓰거나 진주분환·저백환을 쓴다.”

56) 『對譯東醫寶鑑』·「用藥·肥瘦用藥」, p.958.

57) 『對譯東醫寶鑑』·「脹滿·脹滿治法」, p.1430.

58) 『對譯東醫寶鑑』·「診脈·肥瘦長短異脈」, p.939.

59) 『對譯東醫寶鑑』·「審病·診病之道」, p.904.

60) 『對譯東醫寶鑑』·「審病·五色占吉凶」, p.906.

61) 『對譯東醫寶鑑』·「小兒·辨痘形色善惡」, p.1928.

62) 『對譯東醫寶鑑』·「審病·五色占吉凶」, p.906.

63) 『對譯東醫寶鑑』·「面·明堂部位」, p.470.

64) 『對譯東醫寶鑑』·「面·面見五色」, p.473.

65) 『對譯東醫寶鑑』·「小兒·觀形察色圖」, p.1844 ; 「小兒·諸熱」, p.1887.

66) 『對譯東醫寶鑑』·「脹滿·脹滿治法」, p.1430.

67) 『對譯東醫寶鑑』·「用藥·肥瘦用藥」, p.958 : “얼굴이 흰 사람은 발산하는 약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기가 허한데 기를 더 소모하기 때문이다. 얼굴이 검은 사람은 황기를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기가 실한데 기를 보하기 때문이다. 기가 실한 사람이 황기를 많이 복용하여 숨이 잘 때는 삼요탕으로 사해야 한다.”

68) 『對譯東醫寶鑑』·「審病·診病之道」, p.904 : “오장의 形象은 오장에 속하는 物類로 미루어 알 수 있고, 오장에 상응하는 소리는 마음[意]으로 헤아려 알 수 있으며, ...”

69) 『對譯東醫寶鑑』·「濕·中濕」, p.1156 : “얼굴색이 푸석푸석하거나 번지르르한 것은 증습 때문이다.”

70) 『對譯東醫寶鑑』·「小兒·五體以頭爲尊一面惟神可恃」, p.1845 : “눈에 정기가 없는 것은 신허한 것이다.”

했다. 그렇다면 ‘形’의 상태와 ‘氣’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부위는 없을까? 芝山은 ‘形’의 상태는 입으로, ‘氣’의 상태는 코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鼻·鼻爲玄牝之門戶」에서 “코는 천기와 통하니 현문이라 하고, 입은 지기와 통하니 빈호라고 한다. 그러므로 입과 코는 현문의 문호이다.”⁷¹⁾라고 한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코는 천기가 통하고, 입은 지기가 통하는 곳이므로 이 통로가 크다는 것은 천기나 지기가 많이 드나들 확률이 그만큼 클 것이다. 또, 코와 입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形’과 ‘氣’의 성쇠 여부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芝山은 코와 입을 ‘形氣’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부위로 보았다.

‘形’과 ‘氣’를 주관하는 장기를 다르게 보고 진단하는 방법도 있다. 「審病·察病玄機」에서는 “심폐가 상하면 안색이 좋지 않고, 간신이 상하면 형이 마른다.”⁷²⁾고 하였다. 이는 색으로 심폐의 상태를 판단하고, 形으로 간신의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 통증의 여부로 ‘形’과 ‘氣’를 구분하여 진단하는 방법도 있다. 「濕·濕多身痛暑無身痛」에서 “서병에 대부분 몸이 쭈시지 않은 것은 기를 상하고 형을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병에는 대부분 몸이 쭈신다. ... 땅의 습기를 받으면 사람의 피육·근맥을 해치는 것은 습이 형을 상하니 형이 상했기 때문이다.”⁷³⁾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통증이 없는 것은 서병으로 氣를 상했기 때문이고, 통증이 있는 것은 습병으로 形을 상했기 때문이다.

또, 「虛勞·變氣虛血虛陽虛陰虛」에서는 ‘形’과 ‘氣’를 함께 묶어 진단하는데, 肥白者는 陽虛, 黑瘦者는 陰虛하다고 하였다.⁷⁴⁾ 「小兒·聲音」에서는 “두창이 돋았지만 음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형병이다. 두창이 아직 돋지 않았지만 음성이 먼저 변한 것은 기병이다.”⁷⁵⁾라고 하여 음성으로 ‘形’과 ‘氣’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形’과 ‘氣’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頭·眩暈」에서는 肥白人은 사군자탕을 가감하고, 黑瘦人은 사물탕을 가감하여 활용한 것이 그 예이다.⁷⁶⁾ 또, 「虛勞·勞倦傷治法」에서는 ‘氣’를 상해서 오는 노력상은 보중익기탕을, ‘形’을 상해서 오는 노심상은 황기건중탕을, ‘形’과 ‘氣’ 모두 상해서 올 때는 쌍화탕을 제시하였다.⁷⁷⁾

이와 같이 ‘形’과 ‘氣’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주로 肥瘦·黑白으로 구분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하였다.

10. 맺음말

『東醫寶鑑』은 그 이전의 의서들이 질병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것에 비해 사람중심으로 서술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는 것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身形門의 첫 번째 제목인 [形氣之始]에서부터 다른 의서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形氣之始]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체는 ‘形’과 ‘氣’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形氣論의 인체관은 『東醫寶鑑』 전반에 나타난다.

먼저, 구성면에서 볼 때, 「集例」에서부터 인체관을 볼 수 있다. 즉, 인체를 內外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이는 形氣論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목차에서도 이어진다. 내경편·외형편은 인체의 內外, 즉 ‘形氣’를 논하고 있고, 잡병편은 內外가 섞여 복잡하게 나타나는 질병을 논하였다. 그리고, 탕액편은 內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침구편은 外를 통해 치료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즉, 탕액편과 침구편은 치료 방면에서 內外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내경편 내에서 세부목차를 볼 때 ‘形’과 ‘氣’를 대표하는 정·기·신·혈과 오장육부를 편성한 것과, 身形門 내에서의 [形氣之始]를 비롯한 세부목차를 통해서도 形氣論의 인체관을 엿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인체는 천지의 정기를 근원으로 하여 생성되는데, 천기는 인체의 기능(운행)을 이루는 ‘氣’가 되고, 지기는 인체의 구조(조직)를 이루는 ‘形’이 된다. 그리고, ‘形’은 四大(정·기·신·혈), ‘氣’는 五常(오장육부)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인체의 形氣는 정·기·신·혈의 편차, 오장육부의

71) 『對譯東醫寶鑑』·'鼻·鼻爲玄牝之門戶', p.565.

72) 『對譯東醫寶鑑』·'審病·察病玄機', p.907.

73) 『對譯東醫寶鑑』·'濕·濕多身痛暑無身痛', p.1162.

74) 『對譯東醫寶鑑』·'虛勞·變氣虛血虛陽虛陰虛', p.1254 : “살지고 얼굴이 하얗게 뜨는 것은 양허한 것이다. ... 마르고 안색이 검푸른 것은 음허한 것이다.”

75) 『對譯東醫寶鑑』·'小兒·聲音', p.1932.

76) 『對譯東醫寶鑑』·'頭·眩暈', p.446 : “p.448 살지고 흰 사람에게는 사군자탕에 황기(밀구)를 2배로 넣고, 반하·진피를 넣은 뒤 천궁·형개를 약간 넣어 머리와 눈을 맑게 한다. 검고 마른 사람에게는 이진탕에 사물탕을 합하고, 편근·박하를 넣은 것에 죽력·생강즙·동변을 넣어 복용한다.”

77) 『對譯東醫寶鑑』·'虛勞·勞倦傷治法', p.1220 : “힘을 많이 써서 상한 것[勞力傷]은 순전히 기를 상하여 땀이 없는 것이니 보중익기탕을 쓴다.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한 것[勞心傷]은 혈까지 상하여 땀이 있는 것이니 황기건중탕을 쓴다. 마음과 몸이 모두 피로하여 기혈이 모두 상했을 때는 쌍화탕을 쓴다.”

편차로 인해 사람마다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특히 남녀 간의 形象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 이에 따른 특성과 치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관은 후일 ‘四象醫學’과 ‘形象醫學’의 근간이 되었다고 본다.

‘形氣’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화해간다. 돌 전에는 변증의 과정을 통해 形氣가 변한다. 그리고, 10세를 주기로 氣의 성쇠가 일어나고, 남자는 8세, 여자는 7세를 주기로 形의 성쇠가 일어난다.

또, ‘形’과 ‘氣’는 대대적 관계를 이루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적절치 못할 때에 병리적 상태가 유발된다.

‘形’과 ‘氣’는 생리·병리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특히 ‘形’은 肥瘦로 ‘氣’는 色으로 나타난다. 이때 肥人은 氣虛·寒·濕·痰, 瘦人은 血虛·熱·火·燥의 병리가 나타나며, 色은 五色으로써 오장의 병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간단하게 黑白으로 나누어 黑은 陰虛, 白은 陽虛로 보기도 하였다.

이는 진단·치료에도 연결된다. 肥人은 주로 濕痰의 병리가 나타난다고 보아 이진탕이나 반하·창출을 주로 사용하고, 瘦人은 주로 血虛·火·熱의 병리가 나타난다고 보아 사물탕이나 황련을 주로 사용한다.

또, ‘形’과 ‘氣’의 병을 구분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形’의 병은 몸이 마르거나 통증이 있고, 음성이 변하지 않으며, ‘氣’의 병은 안색이 좋지 않거나, 통증이 없고, 음성이 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東醫寶鑑』은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 ‘形氣’라는 관점이 시종일관 드러난다. 이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形氣’라는 바늘과 실로 당대의 수많은 의학적정보를 꿰어 보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述而不作’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한의학의 특징은 체질의학이라는 말을 한다. 이에 이 ‘形氣論’은 더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東醫寶鑑』이 四象醫學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은 ‘形氣論’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四象醫學의 뿌리 찾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또, 形象醫學에서는 八象論과 九宮論을 그 핵심 이론으로 보고 있는데, 八象論은 ‘形’에 대한 이론으로, 九宮論은 ‘氣’에 대한 이론으로 볼 수 있기에, ‘形氣論’이 그 뿌리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반대로 四象醫學과 形象醫學을 연구하는 것은 『東醫寶鑑』의 현대적 모습을 찾는 연구가 된다 할 것이다. 이에 『東醫寶鑑』과 四象醫學, 形象醫

學 상호간에 ‘形氣’라는 말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연구를 통해 발전을 꾀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 (<http://www.dongui400.or.kr>), 『東醫寶鑑』으로 읽는 韓醫學의 歷史(39) : 金南一, 『『東醫寶鑑』의 形氣에 대한 논의』.
2. 白根基, 「形象에 관한 文獻 考察」, 大韓傳統韓醫學會誌, 1999.
3. 許浚 지음, 원진희 역, 『精校註譯東醫寶鑑·內經篇』, 신우문화사, 2003.
4. 許浚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對譯東醫寶鑑』, 東醫寶鑑出版社, 2005.